

국내외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통해 탄소중립 이행 확산 지원

- 기후부·기후대응위,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는 4월 22일 오후 여수 유탐마리나호텔(여수시 수정동 소재)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여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지원하며, 150여 명의 국내외 탄소중립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소개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맨체스터시 탄소중립 담당 공무원과 헝가리 기후정책연구소 담당자가 자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국내 사례로는 여수시가 블루카본 정책의 추진 현황과 탄소중립 시민협의체 활동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사례 발표 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지방정부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지방정부는 건물 관리, 토지 이용, 교통 정책, 폐기물 처리와 같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보유한 탄소중립의 중요한 실질적 이행 주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이행 사업이 전 국토의 탈탄소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적응정책국장은 “우리 위원회는 권역별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6년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 개요. 끝.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 상 현 (044-201-6640)
		담당자	사무관 김 승 현 (044-201-6651)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후적응정책국 공정전환과	책임자	과 장 김 승 현 (044-200-1948)
		담당자	사무관 장 인 애 (044-200-1949)



□ **행사 개요**

- (행사명)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
- (일시) '26.4.22.(수), 14:00~17:00
- (장소) 여수 유타마리나 호텔
- (참여대상) 광역·기초 지방정부 탄소중립 담당자 및 해외 지방정부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중앙정부의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 정책 소개
 - 국내·외 지역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표

□ **세부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14:00~14:05	• 개회사
14:05~14:10	• 인사말씀
14:10~15:10	• 2035 NDC와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 체계
	•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
	•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현황 및 추진방향
15:10~15:30	• 휴식
15:30~16:10	• 해외 탄소중립 정책 우수사례 발표 1
	• 해외 탄소중립 정책 우수사례 발표 2
16:10~16:50	• 여수시 탄소중립 시민협의체 활동 사례
	• 여수시 블루카본 정책 추진 사례
16:50~17:00	• 폐회